

## 제 52 강

# 오순절 성령강림과 초대 교회(사도행전 연구 I)

■ 성경본문 사도행전 1:1-5:42 ■

### 프렐류드(Prelude)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공생애, 사역,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성경입니다. 각기 직면한 문제와 환경 때문에 조금씩 관점을 달리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인간과 역사를 파괴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4복음서는 통일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증언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교회사’(敎會史)입니다. 특히 복음의 정점인 예수의 ‘승천’하심(눅 24:50-53)과 승천 바로 전 ‘부활 후 40일’(행 1:3)을 명시한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하심, 제자들과 함께 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교회의 태동을 연결 짓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기 때문에 연결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범위	예수의 탄생—죽음, 부활, 승천까지	예수의 승천—바울의 로마 도착까지
중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사도들과 제자들의 활동
선교 대상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대상 복음전파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인을 상대로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지리적 구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로 가는 길)

사도행전은 크게

1. 행 1:1-1:8 -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2. 행 1:6-8:1 -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과 선교
3. 행 8:2-28:31 -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의 선교 활동(행 8:2-28:31)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의 선교는 베드로가, 로마를 포함한 이방 선교는 바울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 2-12장을 ‘베드로 행전’이라 부르고, 13-28장을 ‘바울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I. 주요 내용

1. 열두 번째 제자직의 보완(사도행전 1:1-26)
2. 오순절 성령 강림(사도행전 2:1-41)
3.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사도행전 2:4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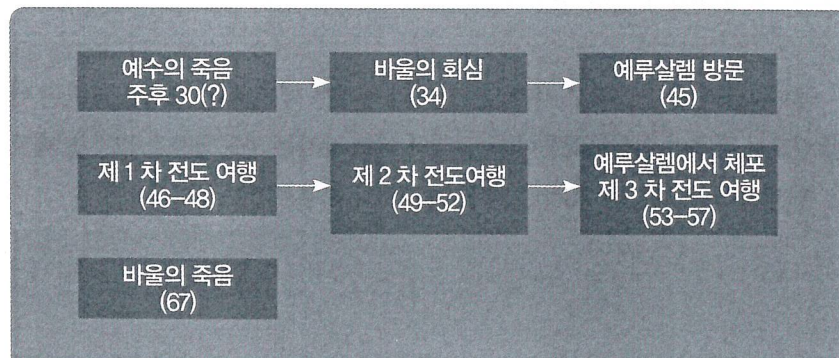
## II. 시대적 배경

사도행전의 시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후 30년경으로 추론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파괴한 ‘유다-로마전쟁’(주후 66-70) 이전이었으며, 로마제국은 점령지의 종교를 묵인하는 유화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으며,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하시딴(Hassidim)의 후예를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열한 제자와 120문도는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처음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최초로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인들도 유대교 성전과 회당에 자유로이 들어 갈수 있었습니다(행 3:1). 바로 이 시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는 큰 꺾임 없이 성령의 큰 불길을 따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 〈연대표〉



### III. 말씀과 해석

#### 1. 열두 번째 제자직의 보완(사도행전 1:1-26)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11 제자는 120명의 성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한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행 1:14). 그리고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여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 가롯 유다의 죽음으로 생긴 빈 자리에 한 사람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행 1:22). 그래서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선출하고 그를 제자직에 참여시켰습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이 하는 방법이지만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며, 구약 12 지파는 새 이스라엘, 12 제자-사도로 옮겨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 2. 오순절 성령강림(사도행전 2:1-41)

누가복음이 예수의 행적과 사역을 수록한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선교행적을 기록한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 둘은 한 분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것과 같이(눅 3:21-22, 4:14) 제자들의 선교 활동도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행 2:1-4).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하심은 크게 세 가지 표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행 2:2). 이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2)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표징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행 2:3). 이 또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눅 3:21, 22)하신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3. 마지막 표징은 ‘방언’이었습니다(행 2:4).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지칭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이 강림하시자 생전에 가보지도 못한 지역의 말을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널리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행 2:9-11)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깨달아 알아 들었습니다(행 2:5-8).

이 은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선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은사는 후일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개인의 내적인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은사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하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일에 증인이로다”(행 2:32)

### 3.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사도행전 2:42-5:11)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공동체였습니다.(행 2:47)

2.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행 2:42)

이때의 가르침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와 말씀을 풀어나가는 ‘교육’을 담고 있었습니다.

3.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행 2:42) 교제-코이노니아였습니다.

4. 네 번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행 2:44-45) 섬김, 봉사-디아코니아(diakonia)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행 2:41)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행 2:44-47).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희년’(레 25:8-12)의 실현이고, 요엘이 노래한 새날(엘 2:28, 행 2:14-21)의 실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참모습이었습니다.

#### IV. 성찰과 나눔

1. 우리의 의식구조에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이원론적 생각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교회를 갈라놓는 근본 오류입니다.

2. 이방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입니다. 그러나 저자라는 이유를 넘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함께 하심-선교를 분부하심-승천하심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이 둘 사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 이 연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이 세우고 다스리는 집단이라는 인간의 이원론적 생각을 뒤엎고,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성령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4. 따라서 교회의 예배, 설교, 교육, 교제, 섬김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종교행사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예배) 가르치고(교육) 교제하며(코이노니아) 섬기는(선교와 봉사)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행 2:32)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